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/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 http://www.mcst.go.kr

'12년 7월 12일(목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식경제부 이재홍 산업기술정책과장(2110-5171), 이종경 사무관(2110-5175)
문화체육관광부 김현환 기획행정담당관(3704-9221), 강지은 사무관(3704-9212)

창조적 융합의 시대, 문화부와 지경부 손을 잡다

– 문화·기술의 융합 및 한류·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한 MOU체결 –

□ **문화체육관광부**(장관 최광식)**와 지식경제부**(장관 홍석우)는 7월 12일(목) 대학로에 위치한 **'기술·인문융합창작소'**에서 **'문화와 기술의 융합,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**(MOU)**'을 체결하였다.**

○ 문화와 기술의 융합에 의한 창조적 기술혁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, 양 부처가 기술 개발 및 혁신, 융합인재 양성, 한류와 산업의 동반 진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한 데 따른 것이다.

○ MOU 취지를 살려 체결식도 기존의 '서면 협약식'이 아닌,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'디지털 협약식'*으로 개최하였으며, 체결식 이후에는 아르코미술관에서 이기봉 작가의 'the Cloudium'(흐린방) 전시를 관람하면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.

* (디지털협약식) 양 장관이 태블릿 모니터에 띄워진 MOU 협약서에 전자펜으로 서명하면, 중앙스크린에 투사된 MOU 협약서에 동시에 서명됨

□ **양 부처 협력의 주요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① 한류 문화 및 산업 진흥

○ 전통문화 재현 로봇 공연처럼 전통문화와 소재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, 한류 열풍을 패션산업의 글로벌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문화예술 콘텐츠와 타 산업과의 연계를 확산할 계획이다.



<로봇 국악공연 "에버가 기가막혀">



<로봇 한복패션모델>

② 기술 개발 및 혁신

○ 기술에 인문학적 감성이 접목된 아이폰이나 공연에 디지털기술을 접목시킨 태양의 서커스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 문화·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, 양 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연구원과 지식경제부 기술인문융합창작소 등을 활용하여 공동 기획·연구 수행

③ 융합 인재 양성

○ 문화예술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 전문인력과 과학기술적 사고와 지식을 겸비한 문화예술·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양 부처 유관기관 간 인력 교류와 기업의 창의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.

④ 기업 메세나(문화예술 후원활동) 지원 및 창의적 문화 조성

○ 기업 메세나 확산과 산업현장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접목을 위해 노력하며, 산업단지를 행복한 일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 문화공연, 벽화 조성 및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.

*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예술위원회 공동, 산업단지 내 문화적 요소 확충에 협력

- 이를 통해, 산업단지를 문화생활도 누리는 행복한 일터로 전환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일자리로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.



<산업단지 벽화 공모전>

⑤ 해외 진출 및 홍보

○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전시 참가, 한류 관련 행사의 홍보·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- 3D영화, 만화 등의 콘텐츠와 3D-TV 등 기기의 해외 동반 진출과 해외 한국상품전과 한류문화축제를 연계하여 한류와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.

- 특히, 올해 11월초에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 예정인 '양곤 세계 일류한국상품전 및 한류문화축제'는 한국 상품전과 한류문화 축제를 연계한 행사로 한국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⑥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

○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의 문화·기술을 홍보하고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
- 특히, 지난 5월 올림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평창올림픽대회 조직위와 지식경제부 R&D 전략기획단 간 체결한 MOU('12.5.2)의 이행에 부처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.

⑦ 부처 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**정책협의회를 구성**하여 세부 추진과제의 공동 수립, 예산·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한 정책 연계,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□ 그간 양 부처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과 한류 확산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, 이번 MOU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적 활용과 고부가가치화, 한류와 기업의 동반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문화부 최광식 장관은 "한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다변화·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."면서, 이번 MOU를 계기로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.

○ 지경부 홍석우 장관은 "기술인문 융합은 시대의 흐름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"고 하면서 "양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나가겠다"고 언급하였다.

* 붙임1 : 업무협약(MOU) 문안
* 붙임2 : 업무협약(MOU) 체결관련 양 부처 주요 협력사업
* 붙임3 : 행사장 개요

붙임 1 업무협약(MOU) 문안

- 문화와 기술의 융합 및 한류와 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-

문화체육관광부·지식경제부 업무협력 합의서(안)

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기술·산업 간 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한류문화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, 기업과 한류의 동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1. (업무협력 방향) 양 부처는 문화와 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창조적 활용과 기기-서비스-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한다.

2. (한류문화 및 산업진흥) 양 부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타 산업 연계 확산, 전통지식의 산업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신시장 개척과 한류문화 진흥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.

3. (기술 개발 및 혁신) 양 부처는 문화·기술의 융합 시너지 창출이 필요한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산하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및 민·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.

4. (융합인재 양성) 양 부처는 문화예술적 소양 및 인문사회적 사고를 가진 이공계 전문인력과 과학기술적 사고와 지식을 겸비한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.

5. (기업 메세나 지원 및 창의적 문화 조성) 양 부처는 기업 메세나(문화예술 후원활동)와 '창의경영,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'을 위해서 기업·산업현장과 문화예술의 다양한 접목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.

6. (해외진출 및 홍보) 양 부처는 문화예술 콘텐츠, 한류 연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전시 참가, 한류 관련 행사의 홍보·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7. (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) 양 부처는 대한민국의 문화·기술의 홍보와 첨단기술의 체험을 통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.

8. (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) 부처 간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9. (부처 간 교류 증진) 장관 교차 강연, 공동 워크숍의 개최와 현장체험 방문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, 정책자문위원 교차 추천 등을 통해 부처 간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.

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하여 종료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.

2012년 7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 2부를 작성하였다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	지식경제부장관
최광식	홍석우

붙임 2 **업무협약(MOU) 체결관련 양 부처 주요 협력사업**

□ 한류 문화 및 산업 진흥

○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

- (문화부) 전통문화산업박람회 공동개최, 전통문화요소 발굴·아카이브화, 전통문화와 로봇기술 융합 아이템(전통문화 재현 로봇공연 등) 발굴
- (지경부) 전통문화의 산업적 활용 홍보 및 대상기업 지원, 로봇 시범보급사업 일환으로 문화부에 예산 지원

○ 한류콘텐츠와 패션산업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

- (문화부) 한류콘텐츠 및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 지원
- (지경부) 글로벌 패션 브랜드 기업의 육성

□ 기술 개발 및 혁신

○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제품, 기술 비즈니스모델 발굴·기획 협력

＊ 문화부(문화기술연구원), 지경부(기술인문융합창작소) 등 협력, 공동기획·연구

○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(SW)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

- (문화부) SW 저작권 보호 등 공정이용 기반 조성
- (지경부) SW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

□ 융합 인재 양성

○ 유관기관 간 인력교류, 기업의 창의학습 프로그램 지원 확대

- (문화부)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/(지경부) 프로그램 보급

□ 기업 메세나(문화예술 후원활동) 지원 및 창의적 문화 조성

○ 기업 메세나 확산 협력

○ 산업단지 문화예술 동아리 및 공연 사업 확대

＊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문화부 유관기관(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,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) 공동으로 산업단지 내 문화요소 확충 지원사업 실시 중

□ 기기-콘텐츠 및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홍보

○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킬러 콘텐츠 공동 개발

- (문화부) 3D, CG, 홀로그램 및 스마트콘텐츠 등 개발
- (지경부) 무안경 3D-TV 등 스마트기기 기술개발 협력 및 번들(탑재)형태로 콘텐츠와 기기의 해외 동반진출 지원

○ 국제 IT기기 및 콘텐츠 전시회에 기기와 콘텐츠 동반 참가

- (문화부) 3D영화, 만화, 애니, 게임, 스마트콘텐츠 등 콘텐츠 지원
- (지경부) 스마트폰, 스마트TV, 태블릿PC, 3D TV등 기기 지원

○ 콘텐츠 및 한류 연관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

- (문화부) 콘텐츠 및 한류 관련 세계일류상품 및 기업 선정 지원
- (지경부) 해외 전시회 개최/참가 시 콘텐츠기업의 참여 지원

＊ 한국관광공사와 KOTRA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홍보행사에 공동 참여하고, 이를 통해 문화·관광과 무역 홍보를 동시에 추진

□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

○ 기술과 예술, 스포츠의 융합을 통해 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성공적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력

□ 기타 협력과제

○ 에너지시설 및 폐산업자원(폐광시설, 유휴공장 등) 문화·관광자원화

- (문화부)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사업 추진
- (지경부) 체험 공간 제공 등

○ 조선·자동차·IT 등 '산업관광' 육성

- (문화부) 모델코스 발굴 및 관광상품화
- (지경부) 산업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 지원, 기업 참여 유도

○ 전시·회의산업 지원체계 효율화

붙임 3 | **업무협약(MOU) 체결식장 개요**

□ 체결식장 약도



□ 체결식장 전경

